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또 안타까운 죽음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30명 사상
밀양병원 화재 계기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 화재 발생 피해 키워
다중이용시설 전수 점검 필요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임에도, 유예기간을 들어 설치를 미루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 거주자들의 경우 불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 및 진압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점검과 영세업자들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전남도소방본부와 고흥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3시 40분께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은 고흥읍 윤호21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병원 내 입원환자만 69명이고 전체 거주자만 의료진과 보호자 등 86명에 달하는데도, 불길을 초기에 진압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에서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004년 지상 7층·지하 1층(연면적 3210.6㎡) 규모로 설립된 병원으로,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87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시설법을 바꾸면서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었다. 신설병원이 아니다 보니 설치 유예혜택을 받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설들이 안전 설비를 유예 기간 종료 때까지 미루지 않고 서둘러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집단 거주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와 소방방재청 주도로 정기적인 정밀 안전진

단과 함께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이용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방 당국 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호21병원의 경우 2년 연속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는데도, 올해는 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전남도 소방본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병원은 2018년 1월 소방 특별조사에서 '육내소화전 펌프

누수', 지난해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판정을 받았다"며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올해에는 소방 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흥경찰은 1차 감식을 거쳐 1층 내과 병동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오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에 들어가는 한편, 해당 병원의 전기·소방 점검 내용, 건축물 관련 증·개축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10일 새벽 소방관들이 불이난 고흥군 윤호21병원의 건물 안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광주 초·중·고1~2, 1학기말까지 부분 등교 수업

일동·용주초 이어 수완초 확인

북구 초·중학교 원격수업 연장

광주교육청이 애초 15일까지(북구는 일부 시기 등 다름) 하려던 특수학교, 초·중·고교 원격·등교수업 병행 시기를 남은 1학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북구 일동초·용주초에 이어 광산구 수완초 학생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대다수 초·중·고등

학교가 8월 3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원격·등교수업이 병행된다.

이 기간에 학생밀집도를 낮춰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안팎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안팎이 각각 등교한다.

이 기간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생들은 원격수업에서 배제한다. 학년별, 학급별 등교수업 횟수와 주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안팎이 등교한다.

다만 관내에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해 1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던 북구 초·중학교는 17일까지 1주일 더 원격수업을 연장해 운영하고, 오는 20일부터 남은 1학기까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다.

북구 관내 고등학교 20개교는 기말고사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13일부터 남은 1학기까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다.

앞서 시 교육청은 2~3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했고, 6일부터 15일까지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등교가 중지된데다 병행수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과 고3 수험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렀고, 기말고사는 이달 말 또는 여름방학 직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이은 학생 확진 발생에 따른 교육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긴급 호소문을 내고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주 사이에 급증해 교육청에서는 광주시와 경찰청, 전문 의료인들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당분간은 모임이나 집회 등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300mm 집중호우

광주·12개 시군 호우주의보

광주·전남지역에 오는 14일까지 100~200mm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최대 3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목포·나주·무안·화순·진도·신안·영광·함평·영암·해남·장성·담양)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있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오는 14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강수량은 100~200mm이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30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바람도 거세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2~16m(시속 35~60km)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산사태와 저지대 주택·농경지 침수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순간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계곡·하천에서는 낚시나 물놀이 등의 안전 사고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광주교육청이 올해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국장과 학부모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다시 실시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제한적 등교 수업 운영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변형되고 신뢰도 낮은 평가 결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훼손돼 교원들의 사기 저하 및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평가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골목마다 책 향기...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

광주시 동구가 인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추진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2020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사회적 독서활성화를 꾀하는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를 추진한다.

'올해의 책'은 독서전문가와 시민들이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풀뿌리 독서운동으로 선정도서와 연계한 독후활동 시민공모전, 작가초청 강연, 책 소풍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는 책을 사랑하

는 시민이면 3인 이상 팀을 꾸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참가자는 책을 읽고 다음 주자에게 책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책을 다 읽은 주자는 동구도서관 홈페이지 '올해의 책' 게시판에 서평을 등록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이번 달 20일까지이며,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인 '광주광역시동구도서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동구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두드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북구, 청년예비창업자 위한 '창업학교' 개설

광주시 북구가 지역 청년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0월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0년 창업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업학교는 제1기(서비스업), 제2기(외식업)로 구분되며 상·하반기 각 2개월에 걸쳐 창업 기본교육, 심화교육, 마케팅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부터 2개월 기간동안 진행되고 있는 창업학교 1기는 창업특강, 창업절

차, 세법 등 창업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기본교육과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마케팅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학교 2기는 1기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점을 반영해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는 창업학교 수료 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특별보증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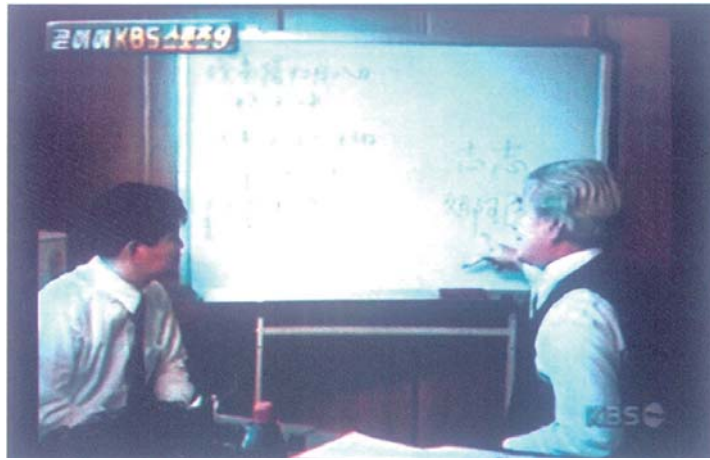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 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